



반도체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 현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동우화인켐 전북 익산공장 방문
- 반도체 공급망 핵심소재 분야 투자 계획 및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30(수) 전북 익산에 소재한 동우화인켐社의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화학약품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하였다.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화학약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며, 특히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핵심소재이다.

동우화인켐은 일본 스미토모화학(日)의 투자로 1991년에 설립된 외투기업으로, 국내 최초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에 익산 생산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익산·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美 관세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산업부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해 현금 지원, 외투기업 전용 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동우화인켐측은 산업부의 현금지원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익산 연구소를 ‘외투기업 R&D센터*’로 지정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외투기업의 R&D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14년~)로, 외출법 상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
→ 지정시 필수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5년→3년이상 근무) 등 인센티브 제공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노형철 (044-203-4089)

참고

동우화인켐 방문 개요

□ 일 시 : '25. 4. 30.(수) 09:00~11:00

□ 장 소 : 동우화인켐 익산공장 및 R&D 센터

투자자 : 스미토모(日)	국내투자기업 : 동우화인켐
· (설립) 1913년 · (소재) 일본 도쿄(본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진출 · (매출) 24,469억엔 ('23, 약 25조원) · (직원) 32,100여명 ('23)	· (설립) 1991년 · (소재) 경기 평택(본사, 연구소), 전북 익산(생산시설, 연구소), 경기 판교(연구소) · (매출) 2조 3,289억원 ('23) · (직원) 2,439명 ('24)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유치과장

동우화인켐 김수련 CTO, 이시용 상무, 박경원 그룹장 등

□ 주요내용 : 간담회(투자현황·계획 및 기업 의견 청취), 현장시찰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00 ~ 09:10 (10')	• 모두 발언 및 소개	연구동
09:10~10:10 (60')	• 간담회	연구동
10:10 ~ 11:00 (50')	• 현장 시찰	생산공장 및 R&D센터